

# 교육에도 좋은 우리나라 전통놀이

## 파라미타, 2010 청소년 문화존 '문화야 놀자' 개막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가 주최하는 2010 청소년 문화존이 5월 8일 서울 인사동에서 개막했다. 청소년 문화존에서는 다양한 전통놀이와 한지 공예, 탈 만들기 등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 왼쪽은 청소년 문화존에 참가한 한 어린이가 꾸민 하회탈이다.

국내외 청소년에게 전통문화와 놀이 체험을 제공하는 문화마당이 인사동에서 11월 13일까지 열린다.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도후, 이하 파라미타)는 5~11월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2010 청소년 문화존 '문화야 놀자'를 개최한다. 2010 청소년 문화존은 5월 8일 개막을 시작으로 29일, 6월 12·26일,

9월 11·25일, 10월 9·23일, 11월 13일까지 9회에 걸쳐 진행된다. 행사 마지막 회인 11월 13일에는 동아리 한마당이 펼쳐질 예정이다. 행사 첫째 날인 8일 개막식은 풍물놀이와 파라미타 상임이사 상인스님의 개막 선언으로 행사 시작을 알렸다. 청소년 문화존에서 만나 볼 수 있

는 프로그램은 솟대 만들기, 한방 비누 만들기, 한지 공예, 거울 만들기, 탈 만들기, 떡메 체험, 투호 놀이 등이다. 체험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자신이 직접 만든 작품 등을 개인 기념품으로 가져갈 수 있다. 행사는 청소년을 위한 문화존이었지만 전 연령대의 대중이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인사동에서는 지나가

던 어르신들이 투호를 던지는 모습, 초등학생이 떡메를 들어 올리는 모습 등 진풍경이 연출됐다. 아버지를 맞아 아들, 손녀들과 함께 행사장을 찾은 채한기(70)씨는 "전통놀이는 아이들의 교육적인 측면에서 유익하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니 감사하다"고 말했다. 채씨 손녀인 여원(9세), 여진(6세)양은 손수 색칠한 하회탈을 쓰고 기념촬영을 하며 즐거워했다. 동대부속여고 박영선(18세) 학생은 연꽃이 그려진 거울을 만들어 보이며 "선물 받는 느낌이네. 직접 참여하니 재미있다"고 말했다.

파라미타는 종로구 청소년문화존 주관 단체로 선정돼 2006년부터 전통문화의 거리인 인사동 일대에서 청소년문화존을 개최하고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 체험과 인사동 탐방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파라미타 권민희 간사는 "파라미타는 중앙회 뿐만 아니라 부산·전남협회에서도 청소년문화존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문화를 전할 것이다. 또 전국 16개 시도에서 파라미타가 청소년문화존 주관단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2)723-6165-6.

박선주 기자 zoo211@buddhapia.com

# “모두가 태양같은 미소지어요”

## 6·19~20일 어린이 법회 지도자 연수



전국 어린이 지도자 연수회에서 지도교사들이 율동을 선보이고 있다. (현대불교 자료 사진)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 여름방학도 있고 바닷가도 있지만 불자 어린이들은 사찰 여름불교학교를 기다리고 있다. 이를 위해 사찰 어린이법회 지도교사들이 어린이들에게 추억을 만들어 주기 위해 모인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종), 사단법인 동륜이 주최하는 제49차 전국 어린이 지도자 연수회가 6월 19~20일 충북 보은 속리산유스호스텔에서 개최된다. 전국 500여 스님과 선생님이 함께하는 이번 연수회는 '태양 같은 미소로 함께하는 여름불교학교'라는 슬로건으로 레크리에이션 방법과 지도법 등 다양한 강의로 꾸러질 예정이다.

강의는 △눈으로 보고 신나게 움직이고(어린이불교교육연구소 율동팀) △21세기, 지구촌어린이 포교(혜전 스님·대만 불광산사 총도감원장 △호흡과 하나 되는 나의 몸(이영빈·관음무용단 단장) △어린이 법회 지도교수법-나만의 교수법 찾기(김윤경·동대부속여고 교사)

△연꽃, 웃음꽃이 피었습니다(이완국·웃음치료사 △오근(五根) 총출동, 신나는 불교학교(신공 스님·사단법인 동륜 이사) △부처님과 함께 리듬에 맞춰 짹짹(이종만·좋은벗 풍경소리) 등의 프로그램으로 채워진다.

최미선 동륜 사무국장은 "이번 연수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자면 오근이다. 다섯 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의 인식작용이 이뤄진 다. 어린이 불교학교 지도자들이 연

수회에 참여해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자신이 어떤 느낌인지 알아차리고 어린이들에게도 같은 느낌을 전달하도록 유도할 것이다"고 말했다. 연수 참가비는 학인스님 4만원, 제주도·울릉도 거주자 및 군중병 3만원, 사전 접수 6만원, 당일 접수 7만원이다. 입금된 참가비는 환불되지 않는다. 해외 거주자는 연수에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051)864-4569

박선주 기자

## “친구들 몸은 소중한니 잘 지켜야 해요”

###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아이들을 위한 성교육 인형극

“친구들이 내 몸을 가지고 놀러거나 장난 치면 '안돼, 하지마, 그만해' 라고 큰 소리로 말하세요. 소중한 친구들이니까 스스로를 지키는 일도 알아야 해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성 정체감을 심어주고 최근 늘어나고 있는 아동 성범죄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무여성인권상담소(소장 김영랑)가 인형극을 통해 초등학생들에게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나무여성인권상담소는 5월 11일 진관초등학교와 19일 은혜초

등학교에서 저학년층 대상으로 인형극 성교육을 진행했고, 6월 28일에는 서울 은평구 증산초등학교에서 성교육을 실시한다. 인형극 성교육은 아이들에게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인형극은 △생명 탄생 △양성 평등 △아는 사람·포레 간 성폭력 등을 주제로 하고 있다. 인형극은 이름이 나무인 여자 아이가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한

다. 나무를 놀린 남자아이는 알고 지내던 여자아이에 성폭력을 당한다. 나무를 놀려 다룬 친구들로부터 혼자자 된 남자아이는 자신이 나무에게 한 행동이 성폭력이었음을 알게 된다. 김영랑 소장은 “인형극을 통한 성교육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성을 자연스럽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교육적 방법이다. 아이들이 성에 대한 궁금증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성에 대한 건강한 가치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02)732-1367 박선주 기자

## 사회복지시설 방문 가톨릭 사회복지회

서울 가톨릭 사회복지회가 5월 19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대오) 산하 구로 종합사회복지관(관장 소회)과 아나눔 장애아 어린이집(원장 신임환)을 방문했다. 이번 불교계 사회복지시설 방문에서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조구만 주교와 김용태·이동원·민경일 신부, 가톨릭 사회복지회 관계자 등이 참여해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고 복지관 이용자들을 위로했다. 가톨릭 사회복지회 관계자는 “부처님의 자비와 하느님의 사랑이 서로 어우러져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과 함께하는 것이 종교의 근본정신을 각인하자”고 말했다. 박선주 기자

## 지혜·자비심으로 상생하는 공동체 되길

### 서울구치소 과불탱화 점안식 및 봉축법회

서울구치소가 5월 12일 불기 2554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구치소의 무사고와 수용자 건강을 기원하는 봉축법회와 과불탱화 점안식을 봉행했다.

봉축법회는 서울 청계사(주지 성행)의 주관으로 열렸다. 성행 스님은 법회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다시 한 번 지혜와 자비심을 기르도록 발심하자. 수용자 여러분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정진해 상생하는 공동체가 되길 바란다. 우리는 부처님 제자로서 화쟁의 공동체를 이어갈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구치소 교정협의회 불교분과위원회(위원장 최숙희)는 전동식 과불탱화(3m50cm x4m30cm) 점안식을 봉행했다. 현재 서울구치소 내에는 법당이 있지만 장소가 협소해 구치소

내 대강당에서 법회를 보고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 대강당은 구치소 내 여러 행사가 열리고 이웃종교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법회가 있을 때마다 불상을 옮겨와야 했다. 이에 서울구치소교정협의회 불교분과위원회는 전

동식 과불탱화를 마련한 것이다. 동참한 사부대중과 수용자 불자들은 과불탱화에 향 등을 올리며 참배했다. 불자들을 대표해 유헌영 포교사와 서울구치소 재소자 불자(법명 해답)는 108배를 하며 예를 표했다. 이날 점안식에는 문수사 해정 스님과 삼천사 성운 스님, 성



5월 12일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과불탱화 점안식에서 유헌영 포교사와 최고수 불자(법명 해답)가 108배를 하고 있다.

불사 해산 스님, 불은사 보은 스님, 응성사 수암 스님, 원각사 대원 스님, 김미숙·오정심·최숙희 교정위원, 조철주·노복일·김경희·김선정·유헌영 포교사단, 서울구치소 불심회 김행규 회장, 수용 불자 대표 등 사부대중 40여 명이 동참했다. 박선주 기자

불기 2554년(2010) 경인년 부처님 오신날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세상'

##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15교구 본말 사명성사 호국성지 **표충사**

### 사부대중 일동

경남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23 표충사  
 전화 055)352-1150 / 팩스 055)352-1836 http://www.pyochungsa.or.kr

2554 Buddha's Birthday 부처님 오신날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세상

## 고객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

### 법무법인 신아

(137-86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8-23 클리포드빌딩 2-3층  
 전화 02)523-0008 / 팩스 02)535-9994  
 www.lawshina.com